

Archives and Records 학술지 수록 논문을 통한 영국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UK through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김현정(Hyunjung Kim)

E-mail: hk48@swu.ac.kr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23-07-24
최초심사 2023-08-01
게재확정 2023-08-21

ORCID

Hyunjung Kim
<https://orcid.org/0000-0003-2825-6756>

초 록

본 연구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록관리학 학술지인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318편의 논문과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1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저자 분포와 공동연구의 비율, 소속기관의 유형별 분포, 주제분야별 분포를 파악하고, 「기록학연구」에서 1,251개, 「Archives and Records」에서 508개의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록학연구」에는 (1) 아카이브, 기록, 기록관리, 기록정보 서비스 등 기록관리 일반에 관한 연구, (2) 공공기록물 관련 연구, (3) 민간기록물 관련 연구, 그리고 (4) 기록의 평가·선별, 폐기 등 기록관리의 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Archives and Records」에는 (1) 커뮤니티 아카이브나 지역 아카이브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다루는 연구가 많고, (2) 기록의 기술이나 선별, 접근, 보존, 서비스 등 기록관리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 구술기록이나 시청각기록 등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도 주요 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in the UK records management field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domestic research by analyzing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for the UK's research trends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KJAS) for domestic ones. The study analyzed 318 articles published in KJAS and 142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since 2013, when the journal changed its title from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authors, including the ratio of coauthorship and authors' affiliations. A set of 1,251 unique terms were extracted from KJAS, and 508 unique terms were extracted from Archives and Records for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main research topics for KJAS include studies on (1) records management in general, such as archives, records,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2) public records management, (3) personal or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4) the techniques for records management, such as archival appraisal, selection, and disposition. In Archives and Records, (1) there are several case studies related to community and local archives, and (2) studie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records description, appraisal, access, preservation, and service, have been performed continuously; furthermore, (3) studies on the digitization of oral history and audiovisual records are also one of the most researched areas.

Keywords: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네트워크분석, 내용분석, 영국 기록학
records management, research trends, network analysis, content analysis, UK
records management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년 수혜 및 2023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23-0220)

1. 서론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대부분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2010년 이전의 연구(김규환, 남영준, 200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남태우, 이진영, 2009)에서는 「기록보존」이나 「기록관리보존」이라는 학술지를 포함하여 분석하기도 했는데, 두 학술지 모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에서 1987년부터 발간했던 「기록보존」은 2005년 제18호까지만 발행되었고, 「기록관리보존」은 1994년에 설립된 한국기록관리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남태우, 이진영, 2009)라고 되어 있으나 국회전자도서관의 목록 정보에 의하면 1996년 제1호를 발간한 후 2012년 제14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현재 명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록관리학이 공식적인 학문으로 인정(강순애, 2013)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 「기록학연구」가 창간되고 200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부터 총무처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가 있기는 했으나 별도의 국립 기록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도 2004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 기록관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20여 년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국립기록관인 The National Archives의 전신인 국가기록보존소(The Public Records Office) 관련 법령이 1838년에 제정되면서(The National Archives, 2023), 체계적인 공공기록물의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송기호, 소매실, 2004), 국가별 기록관리학 논문의 빈도를 분석한 김성환, 오효정(201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술논문 게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기록관리의 실무적인 부분이나 학문 분야로서의 기록관리학의 역사가 매우 깊다. 따라서 기록관리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역사가 오랜 국가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연구 동향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인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학술논문을 통해 영국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가 학술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2000년에 창간된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분석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한 후, 정량분석을 통해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출판연도별 분포와 저자 분포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저자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하여 주요 주제 영역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연구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 또는 국외 기록관리학 분야 전체를 살펴보고 주요 주제분야를 파악하는 연구들과 기록관리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들의 지적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관리학 분야 전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초창기에 수행된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연구(김희정, 2005)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김희정(2005)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핵심 저자군을 파악하고, 저자 동시인용빈도를 활용하여 각국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당시 국내 기록관리학은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미국의 기록관리학에서는 정보기술 기반 전자기록물 관련 주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차원축적분석을 통해 하위 주제영역을 파악한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은 기록물 수집과 분류, 디지털보존과 전자기록물관리, 역사기록물 관리제도, 기록보존소 및 제도,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

고 기록관리 발전 방향 및 정책 등의 여섯 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록관리 기관이나 기능에 관한 내용이 그다음으로 많아, 이용자서비스를 주요 연구영역 중 하나로 다루는 당시 미국의 기록관리학과 차이를 보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5종에 수록된 145편의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연구(이재윤, 문주형, 김희정, 2007)에서는 군집단위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영역으로 전자기록관리 및 디지털보존, 기록관리정책 및 제도, 기록물 기술과 목록, 기록관리학 영역과 교육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문헌단위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 영역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영역임을 밝혔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1기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2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주요 주제영역을 파악하였는데, 그중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는 관련 연구가 전혀 없었으나 2기에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영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논문 344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분석한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의 연구에서도 열람 및 공개, 서비스 프로그램, 기록정보서비스 등을 주제로 하는 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는 1999년부터 2003년을 전반기, 2004년부터 2008년을 후반기로 구분했을 때 후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와 유사한 분석대상에 대한 김규환, 남영준(2009)의 연구에서도 기록정보서비스는 2005년에서 2007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기록관리보존」이나 「기록학연구」보다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 나타났다.

기록관리학 관련 연구는 「기록학연구」가 2009년부터 계간지로 바뀌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도 2012년부터 연 4회 발간하게 되면서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손혜인, 남영준, 2016; 최이랑, 2015).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 또한 이러한 경향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주제어를 빈도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위 1%의 빈도수를 보이는 키워드에 포함되었다(최이랑, 2015). 학회지별로 주제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손혜인, 남영준, 2016)에서도 200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 활용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준형, 류법모, 오효정(2018)의 연구에서도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기에 해당하는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았던 기록정보서비스가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의 후기에 총 10개 토픽 중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토픽모델링과 관련하여 LDA(Latent Semantic Allocation)기법과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기법을 비교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박준형과 오효정(2017)의 연구에서도 기록정보서비스는 두 기법 모두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선택될 만큼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 외(2013)의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는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 73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여 법·제도·정책,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서비스 평가, 이용자 연구 등 네 가지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김소연, 이은주(2022)의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학술논문 183편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단어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등을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고, 대학기록관이나 공공저작물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정보서비스 외에도 기록관리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들의 지적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는 전자기록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판준, 서혜란, 2012; 박옥남, 박희진, 2016; 이소연, 2011; 장로사, 김유승, 2009)가 있다. 우선 장로사, 김유승(2009)의 연구에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중심이 전자기록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며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영역 내 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99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메타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빙과 정보공개 등이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주요 세부 주제임을 제시하였다. 이소연(2011)의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을 통해 전자

기록물 관련 연구를 여덟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주제 영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당시로서는 아직 전자기록물에 관한 현장을 조사하여 문제를 밝히는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김판준, 서혜란(2012)의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자기록물 관련 연구가 법이나 제도 마련에 집중되었던 초기의 연구에서 전자기록시스템과 전자기록의 조직이나 보존 등 실제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기록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박옥남, 박희진(2016)의 연구는 학술지가 아니라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다국적 프로젝트인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의 결과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InterPARES 3에 비해 2013년부터 시작된 InterPARES Trust 프로젝트의 결과물에서 다루는 기록관리의 환경이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및 오픈으로 확장되었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진본성을 강조했던 것에서 진실성, 신뢰성, 진본성, 정확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신탁의 개념이 더욱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연구의 내용과 주제가 모두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서비스와 전자기록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외에는 기록물 평가론에 대한 동향 분석 연구(최재희, 2011)와 기록분류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설문원, 2012), 기록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동향 분석(이소연, 2017), 그리고 기록보존에 대한 동향 분석 연구(나연휘, 박희진, 2022)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를 기록관리일반에 관한 동향분석 연구와 세부주제분야에 집중하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하고 각 그룹을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연구(출판연도순)

구분	연구자(출판연도)	분석대상			분석주제/ 주요분석방법
		기간	학술지	자료수	
기록 관리 일반	김희정(2005)	2000-2004	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American Archivist,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333	기록관리학/ 저자동시인용분석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2007)	2001-2006	기록관리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5	기록관리학/ 문헌클러스터링, 문헌유사도 네트워크분석
	장로사, 김유승 (2009)	2000-2008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9	정보학 영역/ 정량분석
	남태우, 이진영 (2009)	1987-2007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99	기록관리학/ 정량분석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	1999-2008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44	기록관리학/ 구문 및 의미구조분석
	김규환, 남영준 (2009)	1999-2009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74	기록관리학/ 빈도분석, 대응분석
	박희진(2014)	2009-2014	Archivaria	75	기록관리학/ 정량분석, 내용분석
	최이랑(2015)	2004-2013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79	기록관리학/ 내용분석, 네트워크분석
	손혜인, 남영준 (2016)	2000-201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681	기록관리학/ 네트워크분석
	윤여현 외(2016)	2009-2016	Information Management	987	기록정보관리/ 정량분석, 내용분석

세부 주제 분야	박준형, 오효정 (2017)	1997-2016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27	기록관리학/ 토픽모델링
	박준형, 류범모, 오효정(2018)	1997-2016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27	기록관리학/ 토픽모델링
	김성환, 오효정 (2018)	2000-2017	Archivaria, Archival Science, Archives and Records, Records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Inform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rchives and Manuscripts, Library and Archival Security	3,179	기록관리학/ 시계열기반 내용분석
	김희섭, 강보라 (2018)	2001-201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9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네트워크분석
	이소연(2011)	2000-2010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77	전자기록/ 정량분석, 내용분석
	최재희(2011)	1994-2010	기록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	기록물 평가론/ 정량분석, 내용분석
	설문원(2012)	1981-2012	기록학연구,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충청문화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	기록분류/ 정량분석, 내용분석
	김관준, 서혜란 (2012)	1999-2011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전자기록/ 디스크탑터 프로파일링, 저자 프로파일링
	김진,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2013)	2001-2013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3	기록정보서비스/ 정량분석, 내용분석
	박옥남, 박희진 (2016)	2007-2016	InterPARES 3, InterPARES Trust	175	전자기록관리/ 내용분석
	이소연(2017)	2007-2016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0	기록학 연구방법/ 정량분석, 내용분석
	나연휘, 박희진 (2022)	2000-2021	기록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63	기록보존/ 네트워크분석
	김소연, 이은주 (2022)	2001-2022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기록학연구, 디지털문화 아카이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3	기록정보서비스/ 정량분석, 네트워크분석

2.2 2013년~2023년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Archives and Records」의 최근 10년간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기간 국내 기록관리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기록관리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최근의 기록관리 일반에 관한 동향 분석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김희섭, 강보라(2018)의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최근의 연구 동향 분석과 「Archives and Records」와의 비교를 위해 분석 대상 기간을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으로 하고, 기록관리 관련 분야의 학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실무자들

이 설립한 ‘한국기록학회’(김희섭, 강보라, 2018)에서 발간한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동향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 동향 분석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것과 달리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만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손혜인, 남영준(2016)의 연구에서 두 학술지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자의 소속 기관이 대학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달리 「기록학연구」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외 실무 분야에 속한 직업을 가진 저자의 비중이 비슷한 점과 공동연구의 비율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특성보다는 인문학적 특성이 다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서 2023년까지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학술논문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Archives and Records」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기록학연구」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공포된 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에 기록학의 연구와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된 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이다. 2008년까지는 1년에 2회, 2009년부터 1년에 4회 발간하는 계간지가 되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약 3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음 <그림 1>에서 「기록학연구」의 연도별 출판 논문 수의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은 조사 기간인 7월까지 발행된 77호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나머지 78호가 발행되면 논문 편수가 증가할 예정이다. 「기록학연구」에는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서평이나 논평 등의 비정규 논문을 제외한 318편의 정규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기록학연구」 출판연도별 논문수

2.3 Archives and Records

앞서 살펴본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중 국외 동향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김희정(2005)의 연구에서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위해 「American Archivists」와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박희진(2014)의 연구에서는 「Archivaria」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윤여현 외(2016)의 연구에서는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Information Management」라는 기관지의 기사를 분석한 바 있다. 「Archives and Records」는 온라인에 공개된 국제학술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성환, 오효정(2018)의 연구에서 선정된 국제학술지 8종 중 하나로 포함되었는데, 당시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8종의 국제학술지 모두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현재 확인한 결과 그중 「Archivaria」와 「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은 더 이상 Web of Science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Archival Science」와 「Records Management Journal」은 ESCI(Emerging Science Citation Index)에 색인되었으며, 「Information Manage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그리고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JASIST)」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색인되었다. ESCI는 SSCI와 SCI 등을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Thompson Reuters에서 2015년부터 제공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며, 동료심사를 거쳐 출판되는 학술지 중 지역적인 중요도와 새로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들을 포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ESCI를 SCI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성규, 2019)이 있기도 하였다. ESCI는 SCI에 등재되기 전 단계, 즉 KCI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CI에 수록된 학술지는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SSCI에 수록된 학술지의 경우 「Information Management」나 JASIST와 같이 정보학 분야와 관련되거나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의 경우 정책, 정보기술, 정부,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연구를 다루는 학술지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분야의 인용색인인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수록된 「Archives and Record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rchives and Records」는 영국의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ARA)이 발행하는 학술지이며, ARA는 1947년에 설립된 The Society of Archivists(SoA)와 1988년에 설립된 National Council on Archives(NCA), 그리고 The Association of Chief Archivists in Local Government(ACALG)를 통합하여 2010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기록관리 관련 기구이다. 통합된 세 기구 중 가장 큰 단체였던 The Society of Archivists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구이며, 1955년부터 발행했던 학술지인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를 협회가 ARA로 통합된 2010년 이후에도 같은 명칭으로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Archives and Records」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발행한 것이다.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자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서평(Book Review)이며, 학술논문은 전체 자료 중 30.80%에 해당하는 142편이 수록되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부고 기사(Obituary)를 의미하는 전기적 항목(Biographical Item)이며, 편집부 자료(Editorial Material)와 수정 기사(Correction), 그리고 기록관이나 도서관 등 기관에 대해 안내하는 리뷰 기사(Review) 등을 포함하여 총 461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표 2> Archives and Records 자료유형(Document Type) 분포

자료유형	자료수(편)	비율(%)
Book Review	244	52.93
Article	142	30.80
Biographical Item	47	10.20
Editorial Material	23	4.99
Correction	3	0.65
Review	2	0.43
합계	461	100

그중 학술논문 142편의 출판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1년에 2호씩 발행하였고, 2019년 이후 3호씩 발행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12.90편의 학술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 8편의 논문을 발행한 것 외에는 대체로 10편에서 15편 사이의 논문을 발표한다. 2023년은 아직 한 호만 발행하였으므로 논문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해에 비해 1호에 더 많은 논문이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42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Archives and Records」 출판연도별 논문수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KCI에서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정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318편의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과 발행사항, 주제분야, 키워드, 피인용횟수 등의 서지사항을 수집할 수 있었다. 논문명, 학술지명, 키워드 등은 국문과 영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영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영문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였다.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2023년 6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Source Title로 “Archives and Records”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총 46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나 다른 유형의 자료들을 제외하고 142편의 학술논문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저자 정보와 논문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 등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다. 그중 출판연도와 저자의 소속기관 정보 등은 정량분석에 활용하고, 저자 키워드는 네트워크분석에 활용하였다.

3.2 데이터 분석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318편의 학술논문에서 논문 당 평균 5.75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대·소문자와 단·복수 표기를 통일하고 유사어를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 총 1,251개의 고유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법령명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https://elaw.klri.re.kr>)를 활용하여 영문 법령명을 확인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는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이나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Table of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로 통일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키워드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나 법령인 경우에만 대문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national archives”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록관을 의미하고 “The National Archives”는 영국의 국가기록 관리기관인 TN을 의미한다.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142편의 학술논문에서 논문 당 평균 4.7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는데, 대·소문자와 단·복수 표기를 통일하고 유사어를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 508개의 고유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었다. 그중 442개 키워드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6개 키워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정

단어가 다른 특정 단어와 같은 문헌에 저자 키워드로 부여되는 경우 해당 두 단어는 주제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을 모아놓으면 주제별로 연관 있는 키워드의 집합과 그 집합을 대표하거나 특징지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 동시출현단어 분석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저자키워드를 동시출현단어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이재윤의 COOC version 4.0을 통해 키워드 빈도 행렬을 생성하였다. 키워드 빈도 행렬이란 각 키워드의 쌍이 얼마나 자주 동시에, 또는 같은 문헌에 저자키워드로 등장했는지를 측정된 결과이므로, 행과 열에 위치한 키워드 집합이 동일하고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은 정방대칭행렬이 된다. 특히 COOC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순한 동시출현 빈도수를 이용한 행렬뿐만 아니라 동시출현빈도를 정규화한 코사인 연관성 척도를 이용한 행렬과 두 용어가 제3의 용어와 동시출현한 값을 비교한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까지 생성되는데, 이때 코사인 연관성 척도의 행렬은 키워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은 키워드 네트워크의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재윤의 W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사인 연관성 행렬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군집분석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NodeXL에서 시각화하였다.

4. 분석결과

4.1 정량분석

4.1.1 저자의 분포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저자는 총 292명으로 논문 당 평균 1.08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그중 75.34%에 해당하는 220명의 저자가 1편의 논문에 참여하였고, 2편에 참여한 저자는 36명(12.33%), 3편에 참여한 저자는 11명(3.77%), 4편에 참여한 저자는 8명(2.74%)이다. 10편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저자가 총 4명인데, 각각 21편, 18편, 14편, 10편의 논문에 참여하였다. 단독연구가 59.75%인 190편이고, 5인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논문이 총 6편으로 전체 1.89%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저자가 참여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 결과물(신동희 외, 2017)로,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원질서 존중원칙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며, 총 9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Archives and Records」의 저자는 총 230명으로 논문 당 평균 1.6명 정도의 저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94.35%에 해당하는 217명의 저자는 1편의 논문에 참여하였고, 2편의 논문에 참여한 저자는 11명(4.78%), 3편의 논문에 참여한 저자는 단 2명(0.87%)이다. 「기록학연구」와 마찬가지로 인문학 분야의 특성이 강한 학술지인 만큼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 다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연구가 83편으로 전체 142편 중 58.45%에 해당하며, 5명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연구는 단 3편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는 영국의 국립기록관인 The National Archives의 디지털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Barons et al., 2021)로, 대학에서 위험관리를 전공하는 연구자와 국립기록관 소속의 연구자들을 포함한 1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 모두 단독연구의 비율이 50%를 넘고 5인 이상 참여한 연구는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표 3〉 공동연구의 비율

기록학연구			Archives and Records		
저자수(인)	논문수(편)	비율(%)	저자수(인)	논문수(편)	비율(%)
9	1	0.31	12	1	0.70
7	1	0.31	7	1	0.70
6	2	0.63	5	1	0.70
5	2	0.63	4	5	3.52
4	10	3.14	3	16	11.26
3	18	5.66	2	35	24.65
2	94	29.56	1	83	58.45
1	190	59.75			
합계	318	100	합계	142	100

「기록학연구」의 경우 KCI에서 대부분 국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저자가 대부분이고, 해외 기관에 속해 있더라도 내국인인 경우이므로 별도로 소속 기관의 위치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는데, 「Archives and Records」는 저자의 소속 기관의 위치가 다양하므로 그 분포를 파악하였다. 단, 230명의 저자 중 3명은 소속기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고 227명의 소속 기관의 위치를 정리하였다. 전체 49.34%에 해당하는 112명의 저자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영국에 위치한 기관 소속이며, 그다음으로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30개 국가에서 참여하였다. 국내 저자의 연구도 한 건 포함되어 있는데, 기록물 기술 표준인 ISAD(G)의 채택과 관련한 연구(Youn, 2015)이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술지이나 영국 외에 다양한 국가에 있는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Archives and Records」 국가별 저자 분포

국가	저자수(명)	비율(%)	국가	저자수(명)	비율(%)
영국	112	49.34	독일, 스페인 칠레, 프랑스	2	0.88
미국	25	11.01			
호주	16	7.05	가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북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자마이카 카타르 크로아티아 한국	1	0.44
남아프리카공화국	13	5.73			
캐나다	11	4.85			
중국	8	3.52			
아일랜드	7	3.08			
이탈리아	4	1.76			
튀르키예					
브라질	3	1.32			
스웨덴					

저자의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기록학연구」의 저자 소속기관은 기본적으로 KCI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고, 기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 논문의 원문에서 저자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510명의 저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Archives and Records」의 경우 소속기관의 국가를 확인했다라도 전공 분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형별 저자 분포표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Archives and Records」의 경우 211명의 저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정리하였다. 두

학술지 모두 대학의 범주에 속하는 저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도 「기록학연구」가 76.08%, 「Archives and Records」가 70.1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그다음으로 법무부, 국가보훈처, 국가철도공단,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경상남도 경찰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이 많았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나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한국문헌정보기술 아카이브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몽골국가기록원 등 기록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에이티앤아이, 알앤소프트 등 기록관리와 관련된 일반 기업과 사단법인 통일외의 집,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등 협회/단체 등이 있다. 이는 손혜인, 남영준(201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록학연구」의 경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논문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rchives and Records」의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이 기록관인 경우가 대학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인 경우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관 유형별 저자 분포

「기록학연구」			「Archives and Records」		
기관 유형	저자수(명)	비율(%)	기관 유형	저자수(명)	비율(%)
대학	388	76.08	대학	148	70.14
공공기관	37	7.25	기록관	24	11.37
연구기관	28	5.49	도서관	17	8.06
기록관	24	4.71	협회/단체	9	4.27
기업	17	3.33	연구기관	4	1.90
도서관	7	1.37	공공기관	3	1.42
협회/단체	6	1.18	미술관	3	1.42
교육원	1	0.20	금융기관	1	0.47
독립연구자	1	0.20	독립연구자	1	0.47
박물관	1	0.20	박물관	1	0.47
합계	510	100	합계	211	100

「Archives and Records」 저자의 소속기관과 전공 분야별 분포는 다음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가장 많은 저자가 속한 대학의 경우 저자의 전공 주제분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저자가 “information science” 또는 “information studies” 등 정보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archival science” 또는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등 기록학을 전공한 경우와 역사학(history)을 전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예술학(art) 또는 예술사학(art history)을 전공한 저자와 어문학, 법학 등 인문학 관련 주제, 경영·경제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환경과학, 의학, 간호학 등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록학을 전공한 경우 대학이 아닌 기록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속된 경우도 많았으며, 예술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협회/단체, 미술관 등 대학이 아닌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있었다.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주제 분야가 다양한 만큼 「Archives and Records」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 6〉 「Archives and Records」 저자의 기관별·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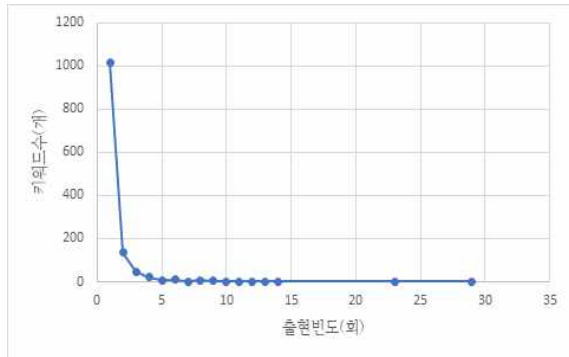
기관 유형	주제분야	저자수(명)	기관 유형	주제분야	저자수(명)
대학	정보학	55	기록관	기록학	24
	기록학	16	도서관	문헌정보학	11
	역사학	16		기록학	5
	예술학·예술사학	12		박물관학	1
	인문학	6	협회/단체	기록학	7
	어문학	5		문헌정보학	1
	미디어	4		예술학	1
	경영·경제학 교육학 사회학 지리학 통계학	3	연구기관	지역학	2
				사회학	1
				정치경제학	1
			미술관	예술학	2
	기록학	1			
	고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 행정학	2	공공기관	기록학	3
			금융기관	정보학	1
			독립연구자	역사학	1
박물관			기록학	1	
			소계	63	
간호학 문화학 박물관학 법학 응용과학 의학 정치학 컴퓨터공학 학제간연구 화학 환경과학	1				
소계		148			

4.1.2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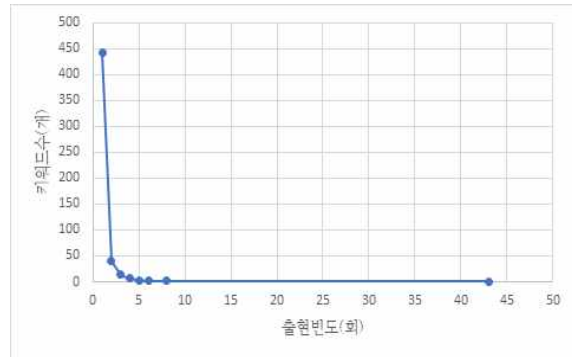
「기록학연구」에 수록된 318편의 학술논문에서 총 1,251개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였는데, 그중 80.98%에 해당하는 1,013개의 키워드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134개로 10.71%,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총 104개이다.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142편의 학술논문에서 508개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였는데, 그중 87%에 해당하는 442개의 키워드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으며, 2회 출현한 키워드가 39개,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가 27개밖에 되지 않았다. 출현빈도별 키워드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두 학술지의 키워드 빈도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록학연구」의 빈도 분포는 최빈도 용어가 29회 출현하고, 그다음으로 23회, 그리고 14회부터는 빠짐없이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Archives and Records」의 경우 최빈도 용어가 43회 출현한 것 외에는 모든 용어가 8회 이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나 「기록학연구」에 비해 용어 출현 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키워드 빈도 분포

기록학연구			Archives and Records		
출현빈도(회)	키워드수(개)	비율(%)	출현빈도(회)	키워드수(개)	비율(%)
29	1	0.08	43	1	0.20
23	1	0.08	8	2	0.39
14	1	0.08	6	2	0.39
13	2	0.16	5	3	0.59
12	2	0.16	4	6	1.18
11	1	0.08	3	13	2.56
10	2	0.16	2	39	7.68
9	3	0.24	1	442	87.00
8	6	0.48			
7	1	0.08			
6	11	0.88			
5	7	0.56			
4	20	1.60			
3	46	3.68			
2	134	10.71			
1	1,013	80.98			
합계	1,251	100	합계	508	100



<그림 3> 「기록학연구」 출현빈도별 키워드 수



<그림 4> 「Archives and Records」 출현빈도별 키워드 수

<표 8>은 「기록학연구」에 7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고빈도 용어인 아카이브와 기록의 평가는 매년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통령기록관이나 기록 또는 기록물, 일상 아카이브, 기록관리, 기록화 전략, 기록정보서비스 등은 비교적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은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연구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역시 비교적 자주 연구되는 주제인데, 2021년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역시 2019년 이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8> 「기록학연구」 7회 이상 출현 키워드

키워드	빈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rchives	29	2	2	2	2	5	3	3	4	3	1	2
appraisal	23	1	1	3	1	3	3	2	1	3	2	3
presidential archives	14	1		2		1		3	2		1	4
records management system	13	4		3		2	4					
records	13	1	2			3	1	3	1	2		
everyday life archives	12	1	1	1	3	1			4	1		
records management	12	2			2	1	2		1	1	1	2
community archives	11	4	2	1	1				1	2		
documentation strategy	10	2	2	2	1			1	1		1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10	1			1	3		1		2		2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10		1	1	2	1		1	2	0	1	1
National Archives of Korea	9	1	1		2	2	1		2			
Table of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	9				3	1	2			3		
documentation	8	2	1		1	1			1	2		
electronic records	8	1	2			1	1	1				2
national archives	8	1	2	1		2	1			1		
personal records	8		1			2			3	1	1	
presidential records	8			2		1	1				1	3
records center	8	2					3	1	2			
narrative	7		2				1	1	1		1	1
합계	230	26	20	18	19	30	23	17	26	21	10	20

「Archives and Records」에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 9>를 보면 43회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인 아카이브는 10년 동안 꾸준히 포함되었고 그다음으로 고빈도 단어인 디지털화(digitization) 역시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인 “Hilary Jenkinson”의 경우 2013년에 3회, 2021년에 1회로 총 4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인명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점이 특이하다. 「기록학연구」에서도 Hilary Jenkinson은 T.R. Shellenberg와 함께 각 1회 출현한 키워드로,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Wales”는 국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므로, 일반적인 키워드로 보이지는 않는데, 비교적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9〉 「Archives and Records」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키워드	빈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rchive	43	1	2	6	1	4	4	5	4	7	7	2
community archive	8			1	2	1				2	1	1
digitization	8		1	1	1	1	1	1	1		1	
affect	6			2		1	1				1	1
records management	6	1		1				2	1	1		
impact	5				1	2				1	1	
outreach	5		1				1	1	1		1	
public history	5				1		2				2	
collaboration	4				1		1		1		1	
digital archive	4	1					1			1	1	
Hilary Jenkinson	4	3								1		
museum	4				1	2			1			
standards	4					1			2		1	
Wales	4					1	1				1	1
archival description	3		1	1							1	
contemporary art	3		1	1				1				
decolonization	3			1		2						
higher education	3					1		1		1		
history	3			1						1	1	
identity	3	1						1			1	
memory	3			1						1	1	
metadata	3								1		2	
oral history	3		1	2								
public records	3				2					1		
research	3				1		1				1	
transparency	3	1							1		1	
volunteering	3				1		2					
합계		8	7	18	12	16	15	12	13	17	26	5

「Archivaria」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희진(2014)의 연구에서 기록관리학의 연구 주제 영역을 기록관리 이론모델, 교육, 정책·법률, 역사 등을 포함하는 (1) 기록관리 일반 영역, 기록물의 수집/선별/평가, 정리/기술, 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기록관리시스템, 보존/디지털아카이빙 등을 포함하는 (2) 기록관리 기술 영역, 그리고 정부기록, 개인/일상기록, 주제기록, 시대/지역기록, 특수기록 등을 포함하는 (3) 기록물 유형 영역으로 나누어 키워드를 분석하였는데, 각 영역의 관련 주제어에 포함된 단어들을 참고하면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의 고빈도 키워드 역시 동일한 분류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록물 유형 영역의 지역기록에 해당하며, 디지털화는 기록관리 기술 영역의 디지털 아카이빙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빈도수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지, 같은 문헌에 동시에 부여되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등을 파악하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통해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네트워크 분석

4.2.1 중심성 분석

「기록학연구」의 학술논문에서 추출한 1,251개 저자 키워드 중 3회 이상 출현한 104개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를 정규화한 코사인 연관성 지수를 활용한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0>은 중심성이 높은 상위 31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중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결속시켜 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재윤, 2006, 195)인 삼각매개중심성은 전역중심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최빈도 용어인 archives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기록의 평가(appraisal), 기록(records), 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커뮤니티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록관리기준표(Table of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나 ISAD(G) 등 기록관리 표준과 관련된 용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등 법령명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기록학연구」 중심성 분석 결과

노드	삼각매개 중심성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최근접 이웃중심성	상대적최근접 이웃중심성	최근접이웃노드(NNs)
archives	385	0.07329	1	0.00971	records
appraisal	372	0.07082	3	0.02913	records freeze
records	161	0.03065	2	0.01942	archives
records management system	127	0.02418	1	0.00971	functional requirements
community archives	108	0.02056	2	0.01942	collective memory
electronic records	106	0.02018	2	0.01942	long-term preservation
documentation strategy	66	0.01256	0	0	5.18 archives
archivists	64	0.01218	2	0.01942	records manager
memory	60	0.01142	1	0.00971	evidence
presidential archives	55	0.01047	2	0.01942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ve memory	50	0.00952	2	0.01942	community archives
participatory archives	50	0.00952	1	0.00971	labor archives
Table of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	49	0.00933	2	0.01942	business transaction
narrative	49	0.00933	2	0.01942	listening
records management	48	0.00914	0	0	arrangement
everyday life archives	46	0.00876	2	0.01942	documentati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41	0.00781	2	0.01942	public records management
democracy	39	0.00742	0	0	ISAD(G)
National Archives of Korea	38	0.00723	1	0.00971	national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governance	38	0.00723	0	0	accountability
national archives	32	0.00609	0	0	presidential records
dataset	29	0.00552	0	0	electronic records
ISAD(G)	28	0.00533	2	0.01942	symbol
semiotics	27	0.00514	0	0	symbol

social memory	25	0.00476	2	0.01942	placeness
accountability	25	0.00476	3	0.02913	appraisal policies
records center	24	0.00457	1	0.00971	archivists
symbol	24	0.00457	4	0.03883	ISAD(G)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23	0.00438	2	0.01942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laceness	23	0.00438	3	0.02913	symbol

「Archives and Records」의 학술논문에서 추출한 508개의 키워드 중 2회 이상 출현한 66개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생성하였다. 최빈도 단어인 아카이브 외에는 각 단어의 출현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므로 단순한 동시출현빈도보다는 빈도를 정규화한 코사인 연관성 지수의 행렬을 중심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 <표 11>은 WNET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의 표이다. 전역중심성을 나타내는 삼각매개중심성 순으로 배열한 결과, 최빈도 단어인 아카이브가 「기록학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제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디지털화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물관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Jones, 2017), 시청각 자료(Ohene-Asah, 2021)와 신문 컬렉션(Lanning, 2021)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연구에서 출현하였다.

<표 11> 「Archives and Records」 중심성 분석 결과

노드	삼각매개중심성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최근접 이웃중심성	상대적최근접 이웃중심성	최근접이웃노드(NNs)
archive	771	0.37067	3	0.04615	history
digitization	38	0.01827	2	0.03077	popular culture
community archive	32	0.01538	2	0.03077	under-documented communities
impact	27	0.01298	0	0	research
public history	22	0.01058	0	0	ethics
Wales	13	0.00625	0	0	local record office
affect	12	0.00577	0	0	community archive
collaboration	12	0.00577	2	0.03077	research
research	11	0.00529	3	0.04615	collaboration
memory	10	0.00481	0	0	access
museum	10	0.00481	1	0.01538	standards
county record office	9	0.00433	5	0.07692	local record office
records management	8	0.00385	0	0	Hilary Jenkinson
access	7	0.00337	4	0.06154	dementia
archival participation	7	0.00337	4	0.06154	ethics
oral history	7	0.00337	0	0	ethics
justice	6	0.00288	4	0.06154	communities
business archive	5	0.0024	1	0.01538	communities
communities	5	0.0024	3	0.04615	business archive
ethics	4	0.00192	4	0.06154	archival participation
local record office	4	0.00192	4	0.06154	records
Northern Ireland	4	0.00192	3	0.04615	preservation
preservation	4	0.00192	3	0.04615	Northern Ireland

social justice	4	0.00192	3	0.04615	social movements
standards	4	0.00192	2	0.03077	metadata
volunteering	4	0.00192	0	0	research
higher education	3	0.00144	3	0.04615	pedagogy
identity	3	0.00144	0	0	preservation
outreach	3	0.00144	1	0.01538	ethics
records	3	0.00144	3	0.04615	local record office
South Africa	3	0.00144	2	0.03077	Post-modernism

그다음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이다. 디지털화와 함께 고빈도 단어 중 하나인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키워드로 포함된 연구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Caswell et al., 2016; Shortall, 2016)인 경우이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기에 영국 내 커뮤니티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Tindley, 2019),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포르투갈 커뮤니티 아카이브(Rodrigues, van der Walt & Ngulube, 2014)에 관한 연구도 있다. 유사한 키워드로는 사유재 아카이브를 뜻하는 “estate archive”와 지역 아카이브와 관련한 “local record office”, “county record office” 등이 있다. 중심성 결과에서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으나 주요 주제 영역을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키워드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주제적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간의 군집화를 살펴보았다.

4.2.2 군집분석

중심성 분석에서는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빈도를 정규화한 코사인 연관성 지수의 행렬을 활용하였는데, 군집분석을 위해서는 2차 연관성 행렬인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활용하였다.

「기록학연구」의 104개 키워드는 PNNC(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알고리즘에 의해 4개의 큰 군집과 26개의 하위 군집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NodeXL을 통해 네트워크 지도를 얻은 결과가 다음 <그림 5>이다. 그림에서는 4개의 큰 군집을 노드의 모양과 색으로 구분하고 중심성을 노드의 크기로 표현하였는데, 42개 용어를 포함하는 가장 큰 군집은 우측 상단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아카이브(archives), 기록(records), 국가기록관(national archives),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기록정보서비스(archival information service) 등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록관리 관련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큰 군집은 중앙의 보라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군집인데, 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과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 등 전자기록과 관련된 용어들과 기록보존(preservation), 장기보존(long-term preserva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등 공공기록물과 전자기록, 기록보존에 관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큰 군집은 좌측 상단의 주황색 세모로 표시된 군집으로, 기록의 평가(appraisal)와 선별(selection), 기록동결(records freeze)과 함께 기록관리기준표(Table of Standards for Records Management)에 관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군집은 좌측 하단의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군집으로 사적인 아카이브(private archives), 개인기록(personal records),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maeul community archive), 일상생활 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저자 키워드로 살펴 본 「기록학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는 아카이브나 기록, 국가기록관,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 등 기록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고,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에 관한 군집이 구분되며, 기록의 선별·평가와 폐기 등 기록관리의 기술이나 과정에 관련된 용어들도 별도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 연구기관, 협회/단체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자의 소속기관이 대부분 국내인 「기록학연구」와 달리 「Archives and Records」의 저자 소속기관은 영국과 미국, 호주에 67%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캐나다, 중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총 30개국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의 저자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두 학술지 모두 최빈도 용어는 ‘아카이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구술기록과 관련된 용어(oral history, narrative) 등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차이점으로는 「기록학연구」에는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등의 공공 기록관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록관리 관련 법령, 기록관리기준표와 ISAD(G) 등 기록관리 표준에 관한 내용이 고빈도 용어에 포함된 반면 「Archives and Records」에서는 법이나 정책, 국립기록관에 관련된 키워드보다는 주로 지역 아카이브나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록관 또는 기록물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정책이나 정부, 공공행정과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에서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의 공동체 기록관에 대한 내용은 「기록학연구」와 「Archives and Records」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용어들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 기억(memory),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과 함께 일상생활 아카이브나 참여형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4.16 기억저장소나 5.18 기록관 등의 공동체 또는 민간 기록물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Archives and Records」에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구축 과정을 조사하여 밝히는 연구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외에도 사유재 아카이브(estate archive)나 카운티 아카이브(county archive), 지역 아카이브(local archive) 등 공공기록물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웨일즈나 북아일랜드 등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도 분석대상 키워드로 포함된 점과 저자의 소속기관 위치의 다양성과도 관련된다.

그 외에 기록의 기술(description)이나 선별, 접근, 보존, 서비스 등 기록관리의 실제적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특히 기록관리의 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기록과 관련된 연구동향이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기록관리의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고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기록관리학이 학문 분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20여 년밖에 되지 않아, 1800년대부터 기록물 보존소에 관한 법령이 마련된 영국에 비하면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으므로 기록물의 관리나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기록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셋 등의 용어가 국내 연구에서도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 관련 용어들도 주요 키워드로 출현하였다. 반면 「Archives and Records」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에는 디지털화 외에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용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신 정의(justice),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윤리(ethics) 등의 추상적인 개념과 접근(access),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outreach) 등 기록관의 2차적 기능에 관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각각 하나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모든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특정 학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의 특성과 주제 분야의 다양성 등에 대한 조사와 국내 학술지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의 발전 방향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국가의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의 연구 동향에 관한 조사를 통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애 (2013).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http://doi.org/10.4275/KSLIS.2009.43.3.417>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지리적 시간적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http://doi.org/10.4275/KSLIS.2018.52.2.165>
- 김소연, 이은주 (2022).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87-107.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087>
- 김판준, 서혜란 (2012).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전자기록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9-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29>
- 김희섭, 강보라 (20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83-204.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나연희, 박희진 (2022). 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175-196.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7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박옥남, 박희진 (2016).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 분석: InterPARES 3와 ITrust 성과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89-120. <http://doi.org/10.14404/JKSARM.2016.16.1.089>
- 박준형, 류법모, 오효정 (2018).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관리학 토픽 트렌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9-47.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박준형, 오효정 (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35-258. <http://doi.org/10.16981/kliss.48.4.201712.235>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http://doi.org/10.3743/KOSIM.2016.33.1.085>
- 송기호, 소매실 (2004).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17-147. <https://doi.org/10.14404/JKSARM.2004.4.1.117>
- 신동희, 김유승, 류반디, 박진경, 박태연, 배양희, 윤은하, 현문수, 김수진 (2017). 무질서의 원질서: 개인기록 정리에 있어 원질서 존중 원칙의 실효성 고찰. 기록학연구, 54, 5-44. <http://doi.org/10.20923/kjas.2017.54.005>
- 윤여현, 이보람, 최동운, 최운진, 임진희 (2016). 'Information Management' 지에 나타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3(4), 245-267. <http://doi.org/10.3743/KOSIM.2016.33.4.245>
- 이성규 (2019. 5. 10.). 과도한 홍보 의욕이 부른 SCI급 저널 논란. YTN사이언스. 출처: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5101615432134>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이소연 (2017). 국내 기록학 연구방법 동향분석(1): 설문과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1, 307-336.
<https://doi.org/10.20923/kjas.2017.51.307>
- 이재윤 (2006).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087>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07>
- Barons, M., Bhatia, S., Double, J., Fonseca, T., Green, A., Krol, S., Merwood, H., Mulinder, A., Ranade, S., Smith, J. Q., Thornhill, T. & Underdown, D. H. (2021). Safeguarding the nation's digital memory: Towards a Bayesian model of digital preservation risk. *Archives and Records*, 42(1), 58-78.
<https://doi.org/10.1080/23257962.2021.1873121>
- Caswell, M., Migoni, A. A., Geraci, N. & Cifor, M. (2016). 'To Be Able to Imagine Otherwise': community archives and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 *Archives and Records*, 38(1), 5-26.
<https://doi.org/10.1080/23257962.2016.1260445>
- Jones, M. (2017). From personal to public: Field books, museums, and the opening of the archives. *Archives and Records*, 38(2), 212-227. <https://doi.org/10.1080/23257962.2016.1269645>
- Lanning, K. (2021). Scanner darkly: Unpopularization in the Burney Newspaper Collection. *Archives and Records*, 41(3), 215-235. <https://doi.org/10.1080/23257962.2020.1810004>
- Ohene-Asah, R. (2021). Audio-visual heritage preservation and the changing dynamics of Ghana's historical film archives. *Archives and Records*, 43(3), 285-296. <https://doi.org/10.1080/23257962.2021.2012441>
- Rodrigues, A., van der Walt, T. & Ngulube, P. (2014). Towards an archival collecting plan for the records generated by the Portuguese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the Gauteng Province of South Africa. *Archives and Records*, 35(2), 93-109. <https://doi.org/10.1080/23257962.2014.938269>
- Shortall, L. C. (2016). 'A permanent house for local archives': a case study of a community's archives in County Offaly. *Archives and Records*, 37(2), 143-156. <https://doi.org/10.1080/23257962.2016.1191452>
- The National Archives (2023). Our history. Available: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about/our-role/what-we-do/our-history/>
- Tindley, A. (2019). Achived in the landscape? Community, family and partnership: Promoting heritage and community priorities through the Argyll estate papers. *Archives and Records*, 40(1), 5-20.
<https://doi.org/10.1080/23257962.2019.1567305>
- Youn, E. (2015). Adoption of ISAD(G) in practice: a close look at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ISAD(G) in a manuscript archives of Korea. *Archives and Records*, 36(2), 128-145.
<https://doi.org/10.1080/23257962.2015.102989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087>
- Choi, Jae 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07>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 Kang, Soon-Ae (2013).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99-229.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http://doi.org/10.4275/KSLIS.2009.43.3.417>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http://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Kim, Heesop & Kang, Bora (2018).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of the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2001 to 20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183-204.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Kim, Pan Jun & Suh, Hye-ra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structure of electronic records research in Korea using profi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29-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029>
- Kim, So-Yeon & Lee Eun Ju (2022).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87-107.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087>
- Kim, Sung-Hwan & Oh, Hyo-Jung (2018).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65-189. <http://doi.org/10.4275/KSLIS.2018.52.2.165>
- Lee, Jae-Yun, Moon, Ju-You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 Lee, Jae-Yun (2006). Centrality measures for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191-214.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Lee, So-Yeon (2017). Methodological research trend analysis of records and archives in Korea(1): Focused on surveys and experimen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307-336.
<https://doi.org/10.20923/kjas.2017.51.307>
- Lee, Sung Kyu (2019, May 10). Controversy over SCI indexed journals caused by excessive publicity. YTN Science. Available: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5101615432134>
- Na, Yonwhae & Park, Heejin (2022).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papers in Korea from 2000 to 202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175-196.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75>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99-125. <http://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Park, JunHyeong & Oh, Hyo-Jung (2017). Comparison of topic modeling methods for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LDA and HD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35-258. <http://doi.org/10.16981/kliss.48.4.201712.235>
- Park, JunHyeong, Ryu, Pum Mo & Oh, Hyo-Jung (2018). Timeline-based topic trend analysi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Park, Ok nam & Park, Heejin (2016).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terPARES 3 and ITrust achievem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89-120. <http://doi.org/10.14404/JKSARM.2016.16.1.089>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 Shin, Donghee, Kim, You-Seung, Ryu, Ban-Dee, Park, Jinkyung, Park, Tae-yeon, Bae, Yang-hee, Youn, Eunha, Hyun, Moonsoo & Kim, Su-jin (2017). Disorder as original order: theoretical discourses of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for person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4, 5-44.
<http://doi.org/10.20923/kjas.2017.54.005>
- Sohn, Hye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http://doi.org/10.3743/KOSIM.2016.33.1.085>
- Song, Ki-Ho & So, Mae-Sil (2004). A study on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in Europe: Britain, France, German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1), 117-147. <https://doi.org/10.14404/JKSARM.2004.4.1.117>
- Yoon, Yeo Hyun, Lee, Bo Ram, Choi, Dong Woon, Choi, Yun Jin & Yim, Jin Hee (2016).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and trends traced from ARMA'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45-267.
<http://doi.org/10.3743/KOSIM.2016.33.4.245>